

워크숍: 전통적인 범포를 사용해 만드는 잡화

방문객은 마쓰에몬 범포를 사용해 소품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사업가이자 발명가인 구라쿠 마쓰에몬(1743-1812)은 자신이 발명한 직기를 사용해 튼튼한 무명천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두꺼운 면사를 사용한 직조 방식으로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에도시대에 일본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마쓰에몬 범포는 강한 내구성과 가벼움을 살려 지금은 범포로서 뿐만 아니라 가방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쓰에몬 범포로 만든 가방과 잡화를 판매하는 직조 봉제 공방 “미카게야”에서는 30 분 정도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된 마쓰에몬 범포 제품은 모두 매장 안쪽에 있는 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장인들이 직접 방문객들에게 공방을 안내해 줍니다.

설명은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작업은 간단합니다. 미리 잘라놓은 캠퍼스 소재에 리벳못을 박고 소품 지갑의 끝을 고정하면 됩니다. 워크숍은 최대 10 명까지이며, 성인 동반인 경우 3 세 이상 어린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1 인당 500 엔이며, 참가자는 소품 지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work_shop@takasago-tavb.com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다카사고시 관광교류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